

조선왕릉 숲길 9곳 개방

글 임동근 기자



문화재청 제공

조선왕릉 숲길 9곳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에 개방된다.

개방하는 숲길은 구리 동구릉 경릉~양묘장 휘릉~원릉, 남양주 광릉 금천교~정자각, 남양주 사릉 홍살문~능침 뒤편,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 서울 의릉 천장산, 파주 장릉 능침 둘레길, 파주 삼릉 공릉 뒤편, 화성 용릉과 건릉 용릉~건릉이다.

특히 구리 동구릉 휘릉과 원릉 사이 때죽나무 숲길 1.4km 구간은 이번에 처음 개방하는 곳이다. 5~6월에 종 모양 흰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때죽나무는 소나

무의 초록빛과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더한다.

공능유적본부는 또 올해 하반기 개방을 목표로 고양 서오릉 서어나무길, 서울 의릉 소나무길, 홍유릉 둘레길 등 조선왕릉 내 11개 숲길을 정비 중이다. 고유 식생환경과 관람객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을 정비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숲길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월요일 휴관)다. 자세한 사항은 각 조선왕릉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참조.

도심 속 아름다운 궁궐의 밤…수원 화성행궁 야간개장

글 김인유 기자



수원문화재단 제공

수원 화성행궁이 5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야간에도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는다.

화성행궁은 조선 시대 22대 왕 정조가 화성시에 있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

(현릉원)를 찾아가는 길에 잠시 들러 머물던 궁궐이다. 수원문화재단이 지난해 7~10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성곽길과 화성행궁을 돌아다니며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야간개장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했다. 도심 속 아름다운 궁궐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가 꿈이며 화성행궁 야간개장에는 4개월간 4만7천명이 방문했고, 올 4월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진행되는 화성행궁 야간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비대면(언택트) 관람 형태로 진행된다. 문화해설사프로그램과 체험·공연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화성행궁을 관람하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야간에 개방하지 않았던 화령전과 화성행궁의 후원인 미로한정을 올해부터 개방한다. 화령전은 수원화성 축조를 주도한 정조 어진(임금 초상화)을 모시기 위한 건물로, 지난해 사적 제115호에서 보물 제2035호로 승격됐다.

수원문화재단은 관람객들이 궁궐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화성행궁 곳곳에 '빛의 포토존'을 설치했다.

글 김재홍 기자

시설 노후화로 철거됐던 부산 송도구름다리가 18년 만에 복원됐다.

부산 서구는 지난 5월 송도구름다리를 복원한 '송도용궁구름다리' 공사를 마치고 한 달 동안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중 개장한다. 송도구름다리는 송도해수욕장 동쪽 송림공원에서 거북섬까지 150m 구간을 연결했으나 2002년 철거됐다.

이 다리는 해상다이빙대, 포장 유선, 해상케이블카 등 송도해수욕장 4대 명물 복원사업 중 마지막 사업이다. 국내 1호 공설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 서쪽 암남공원에서 바다 건너 작은 무인도인 동섬 상부를 연결한다. 길이 127m, 폭 2m, 면적 488㎡로 모두 87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다리 운영을 위한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서구는 올해 무료로 운영한 뒤 결과를 검토해 내년부터 대인 기준 2천원(서구 주민 1천원)의 이용료를 받는 등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수 서구청장은 "사진 속 추억으로만 존재하던 다리가 멋지게 재탄생했



부산 서구 제공

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부산의 명물로 자리 잡아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섬티아고' 신안 병풍도에 예수 12제자 천사조각상 설치

글 조근영 기자

전남 신안군의 작은 섬 병풍도에 예수의 12제자 천사조각상이 설치됐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이면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순수한 섬' 병풍도는 깎아 지른 듯한 기암절벽 등 자연의 신비함이 숨겨져 있고, 청정한 푸른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섬이다. 병풍도에서 노두길(바다에 돌멩이를 놓아 걸어가는 길)로 연결된 기점·소악도는 2017년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됐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여성 순교자인 문준경 전도사의 발자취를 따라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작은 예배당' 12개를 설치했다. 12개의 예배당을 연결한 '12사도 순례길'은 마치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같다 해 '섬티아고'라고 불린다. 기독교인의 성지순례뿐 아니라 삶에 지친 이들의 쉼터와 치유의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신안군은 최근 예수 12제자 천사조각상을 순례자들이 지나는 선착장과 병풍도가 한눈에 보이는 맨드라미 공원, 작은 예배당으로 향하는 노두길 입구 등에 설치해 병풍도를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들었다. 세계적인 성상(聖像) 조각가인 최바오로 작가가 조각한 12사도 천사조각상이 병풍도와 신안을 방문하는 이들의 수호천사가 되고 있다고 군은 전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원불교 성지가 모두 있는 특별한 곳이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 문화와 예술이 있는 천사(1004)섬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신안군 제공

홍천 남산 정상에 '힐링필드 전망대' 조성

글 이상학 기자



홍천군 제공

강원 홍천군이 도심 인근 남산 정상(해발 412m)에 조성한 힐링필드 전망대를 마무리했다.

이곳은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으며 주변에 특색있는 숲길과 유아숲체험장 등이 조성된 지역 대표 산림휴양 명소다. 특히 정상에 오르면 대한민국 100대 명산인 가리산과 공작산을 비롯해 홍천강과 홍천읍, 주변 동면 시가지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전망대는 모두 2억8천만 원을 들여 339㎡ 규모로 조성됐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이번 전망대 설치사업을 기점으로 내년부터 2023년까지 30억 원을 들여 산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남산타워와 모노레일도 설치해 지역 대표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